

세속주의 국가 튀르키예*에서 친이슬람정당 AKP 20년 집권에 따른 정치 이슬람 연구 : AKP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하은***

I. 들어가는 말

II. AKP 집권배경과 성격

III. AKP 정책 변화와 AKP에 대한 평가

VI. 맺는 말

* 튀르키예는 터키의 새 국가명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영어 단어 Turkey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함의로 인해 2022년 6월 튀르키예를 공식 국가명으로 변경하여 UN의 승인을 받았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옛 국명 Turkey의 자국어 발음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새로운 국가명인 튀르키예를 사용하기로 공식화 함에 따라 본 저널에서도 튀르키예로 칭함을 밝힌다. 다만 새 국가명 승인 이전의 연구물들에 대해서는 구 국가명인 터키를 그대로 사용한다 - 편집자 주.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

■ 한글초록

AKP 집권 20년, 현재 튀르키예는 경제 위기와 함께 AKP에 대한 반정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AKP가 주창한 ‘민주보수주의’에 국민은 큰 기대와 지지를 보였지만 초창기 AKP의 정치색(이슬람주의와 자유주의의 연합)은 재집권 시작과 함께 이슬람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 시행으로 사라졌다. 2013년 반정부시위 그리고 2016년 쿠데타를 겪으면서 굴레운동가들을 비롯한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에르도안 개인을 위한 정치 이슬람을 반대한다며 현 정부와 등을 돌렸다. AKP가 집권한 20년 동안 자유주의와 이슬람주의 연합이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듯 분출되고 확장되었지만 지금의 튀르키예는 이슬람주의자도 아닌 세속주의자도 아닌 AKP 정권에 충성된 언론, 기업,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패한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이슬람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기준(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슬람법이 적용되기 원함)에 튀르키예 사회는 갈 길이 멀고 세속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기준(공적인 영역에서 이슬람 성향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함)에서는 튀르키예 사회의 보수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 튀르키예는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두 프레임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이념보다는 자유주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AKP, 정치적 이슬람, 세속주의, 이슬람주의, 자유주의

I. 들어가는 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중 경제위기 또 한 글로벌 이슈로 함께 대두되고 있다. 연구 대상 국가인 튀르키예 역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코로나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터키 정부의 금리인상 거부가 고물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 유지의 이유가 이슬람법에 근거한다는 에르도안 대통령(Recep Tayyip Erdoğan: 2002.07-2014.08; 총리역임, 2014.08-현재; 대통령 재임)의 발표¹에 터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불거지고 있다. 경제위기 뿐 아니라 국내 정치와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인 이슬람 중심 정책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정의 발전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의 입지가 불안해 보인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이슬람국가이지만 이슬람 정당은 창당을 할 수도 없고 히잡을 착용하고는 공공장소에 갈 수도 없는 급진세속주의² 국가였다. 이와 같은 세속주의 국가에서 친 이슬람 정당인 AKP가 2002

-
- 1 Onur Ant and Firat Kozok, “에르도안 이슬람의 저금리 기조 언급 이후, 리라화 폭락(Lira Slides After Erdoğan says Islam Demands Lower Rates)”, Bloomberg, (2021.12.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2-19/turkey-s-erdogan-says-islam-demands-lower-rates-and-so-does-he> (2022년 2월 8일 접속).
 - 2 공화주의(Republicanism), 세속주의(Secularism), 민족주의(Nationalism), 국가통제주의(Etatism), 인민주의(Populism), 개혁주의(Reformism) 이상 여섯 가지 원칙을 케말리즘(Kemalism)이라 칭하는데, 이는 아타튀르크가 세운 당시 집권당인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 CHP)의 기본정강으로 1931년 채택되었다. 위의 여섯 가지 원칙 중에 세속주의와 민족주의는 근대 튀르키예 건설 과정에서 지주 역할을 했다. 1937년 법률 제 3115호 ‘헌법 개정에 관한 법(Teşkilatı Esasiye Kanununun Bazı Maddelerinin Değiştirilmesine Dair Kanun)’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세속주의를 국가의 기본 정책 정강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생 튀르키예공화국은 사실상 세속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M. Hakan Yavuz, *Secularism and Muslim Democracy in Turk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25-27.

년 ‘보수민주주의(Muhafazakar Demokrasi)’³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속주의 정당의 오랜 부패와 경제 위기 속에 혜성처럼 등장하였는데 그들은 이슬람의 정치색을 가리고 튀르키예의 급진세속주의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논조로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 나갔다. 초기 AKP 정권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와 서구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성공적이었다. 이는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겠다는 좋은 예가 되어 아랍의 봄 이후, AKP와 에르도안은 이슬람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AKP 집권 20년이 된 올해, AKP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AKP는 이슬람 정당이며 독재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KP는 강화된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층이 되어 자유주의로 튀르키예를 개혁하려는 첫 마음을 완전히 잃었다. AKP의 이슬람주의가 말하는 이상적 정책과 실현 그리고 결과가 지금 튀르키예 사회의 모습인가? AKP 혹은 에르도안 지지자는 AKP의 이슬람주의가 실패했다고 생각할까? AKP의 이슬람주의가 계속 될 수 있을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자 본인은 2013년 박사논문, ‘터키 정치 이슬람의 부상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AKP의 이슬람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종교성을 지니고 독단적 노선을 갈지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서 여성문제를 푸는 AKP의 정책 연구를 통해 후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밝히고 AKP의 이슬람주의도 다른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주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별반 다른 모습이

3 문화, 정신적 정체성의 보수적 입장을 나타내는 ‘보수’와 정치적 과정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민주주의적 원리를 따르다는 ‘민주주의’로 ‘보수민주주의’는 이슬람 전통의 유지와 서구적 가치의 실용적 적용과 조화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김대성, “터키 정의발전당의 창당과 집권에 대한 연구: 2002년 총선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4호, (2008), pp.13-14.

없다는 것으로 결론 맺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 논문의 목적을 삼고자 한다.

2장에서는 AKP의 집권배경과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튀르키예에서 정치 이슬람이 부상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2장의 내용은 AKP의 장기 집권의 이유도 함께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3장에서는 AKP의 정책 변화와 AKP에 대한 평가를 알아봄으로써 AKP 이슬람주의의 본 모습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KP 집권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AKP의 정책 변화와 AKP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 즉 AKP를 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II. AKP 집권배경과 성격

1950년 이슬람 성향의 중도우파인 민주당(Demokrat Parti: DP)을 시작으로 2002년 총선에서 승리한 친이슬람 정당인 정의발전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까지의 정치변동⁴과 그 과정에서 정치적 주변세력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중심부의 세속주의자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대체하는 현상을 볼 때, 튀르키예에서 정치 이슬람으로의 이행은 자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치변동에는 크게 튀르

4 정치변동(political change)이란 정치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양상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정치변동은 개인의 정치의식이나 행위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수준의 변동에서부터 국가의 정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들, 나아가서는 가장 거시적 차원인 국제정치적 변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키예의 사회변동⁵과 함께 이슬람주의⁶가 큰 역할을 했고 또한 세속주의세력으로 대표되는 군부가 쿠데타라는 강제적 처방⁷으로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간 갈등의 순기능을 하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⁸

특히 1970년대 비대해진 좌파와 우파, 두 집단 간의 갈등은 오히려 보수종교주의 세력의 힘을 키워주는 배경이 되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를 혼합하여 이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고 이로 인해 튀르키예 사회에 친이슬람 성향의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는 이슬람 정당인 복지당(Refah Partisi: RP)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세계화와 맞물린 이슬람 경제의 부활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주의 운동이 부활하였다. 이슬람주의 엘리트로 불리는 아나톨리아 자본가 또는 이슬람 자본가들은

5 사회변동(social change)이란 사회의 도덕이나 법률, 사회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가 변하고, 인간의 습관이나 태도, 신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등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 변동이란 한 사회의 자연 환경이나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충격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하는 것, 혹은 내부의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 모두를 가리킨다. 사회변동을 과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매우 다의적(多義的)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는 사회학에 있어서 A.쿵트 이후 H.스펜서, E. 뒤르켐, F. 퇴니에스 등을 통하여 여러 형태로 이론화되었다. 사회변동의 정도, 변동의 방향성 등 몇 가지 항목에 제한하여 사회 변동을 논하는데 사회 변동의 방향성에 따라 사회 변동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사회 진보론과 사회 순환론이 있고, 사회를 변동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6 이슬람주의는 국가의 사회·정치 의제를 무슬림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튀르키예의 이슬람주의는 누르주, 낙쉬벤디, 굴렌 그리고 알레비 운동과 같은 각각의 이슬람 운동을 중심으로 국가 종교청을 통해 통제되는 순이 이슬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부활을 목표로 하는 매우 복잡하고 파편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7 튀르키예의 군부 쿠데타 사례는 다른 나라의 비민주적 과정과는 다르다. 군부의 정치개입 사례에서 긍정적인 점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1)국헌의 최후 수호자의 역할을 가지며 국헌 문란의 결정적 난국에서만 개입, 2)여론을 이탈하거나 항배하지 않음, 3)국헌 문란의 혼란을 수습한 후 군의 본분으로 귀환하고, 신속히 민정이양을 이행, 4)국정의 기본 원칙인 아타튀르크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 5)자정 과정을 수행, 6)민정이양과정에서 전대의 시형작 오를 배제하려는 의지로 대의민주제의 제도적 개선을 주도, 7)정당정치의 제도화와 정착에 주력, 서재만, 「터키공화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중동정치 이해3』, 21세기 중동이슬람 문명권 연구 사업단 역음 (한울아카데미, 2006), pp.89-90.

8 Ibid., pp.90-91.

이슬람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적 생산과 정치적 행동을 주도하는 한편,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슬람 미디어와 새로운 소비문화의 주체가 되었다. 도시화되고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로 구성된 이슬람주의자들은 세속주의 엘리트에 대항하는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했다.

과거 이슬람주의가 서구 근대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꾸란, 순나, 그리고 하디스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포함한 네 명의 정통칼리프시대(Asr-i saadet)⁹로 돌아가자는 주의였다면 터키에서 새롭게 부상한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이 표방한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전통으로부터 또한 서구 근대화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슬림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 이슬람주의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이슬람과 세속주의, 무엇보다 서구 근대화의 결과물인 민족주의와 자신들의 이슬람주의를 하나로 묶어 과거 아타튀르크식 근대화를 대신하는 이슬람식 근대화를 주창하면서 기존의 세속주의 엘리트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했다.¹⁰ 이슬람주의자들은 터키의 세속주의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또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세속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슬람주의자들의 강경한 태도에 위협감과 함께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으로 더욱 더 이슬람주의자

9 정통칼리프시대(632~661)는 예언자의 오랜 동료이며 장인인 아부 바크르(Abu Bakr: 632~634)가 그 후계자(칼리프)로 등극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신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의 기능을 제외하고, 종전까지 무함마드가 누렸던 모든 권한을 계승하였다. 아부 바크르가 사망하고 그 후임으로 오마르(Omar: 634~644)가 칼리프를 계승하여 이슬람 제국의 실질적인 건설자가 되었다. 이슬람 신앙의 기치 아래 단결된 아라비아족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칼리프 자리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고, 오마르가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에게 피살된 후, 오스만(Osman: 644~656)이 칼리프로 추대되었다. 그 뒤를 이어 예언자의 사촌이며 사위인 알리(Ali: 656~661)가 칼리프에 선임되었으나, 복수를 외치는 오스만 지지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통칼리프시대가 끝난다.

10 Nilüfer Göle, "Secularism and Islamism in Turkey: The Making of Elites and Counter-elites", *Middle East Journal* 51(1), 1997, pp.52-55.

들과 같등했다.

새로운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이 세속주의 엘리트들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의회의 자리를 차지하며 TV토론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양진영 간의 대립이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은 아타튀르크의 근대화 사업을 대신할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이슬람식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도시중심의 정치 이슬람을 만들어냈고 이슬람 정당인 RP가 1994년, 1995년 선거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자 세속주의 그룹은 세속주의와 세속주의 생활방식이 위기를 맞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¹¹

세속주의 그룹은 세속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방책으로 아타튀르크 이념을 중시하려는 활동을 전개했다. 예를 들어, 세속주의 중산층은 아타튀르크의 초상화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RP의 선거 승리 이후에는 아타튀르크의 이미지를 지닌 다양한 물품들이 팔렸다.¹² 아타튀르크의 초상화는 군인이나 대통령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서구화되고 부유한 엘리트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그려졌다. 그림 속의 아타튀르크는 유럽식 의상을 착용하고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대신에 식탁을 사이에 두고 동료들과 더불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서구화된 여성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이러한 그림들은 당시 크게 유행했다. 공무원들과 교사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은 아타튀르크 뱃지를 착용했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하는 아타튀르크 뱃지는 세속주의와 서구화된 생활양식을 지키는 상징으로 여겨졌다.¹³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자신

11 Filiz Başkan, "Religious versus Secular Group in the Age of Globalisation in Turkey",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11(2), 2010, pp.178-179.

12 Yae Navro-Yashin, "The Market for Identities" in *Fragments of Culture: The everyday of Modern Turkey*, eds. by Deniz Kandiyoti and A. Saktanber (London: I.B. Tauris, 2002), pp.229-233.

13 Ibid., p.229.

들의 방법으로 이슬람주의를 반대했는데 악메르케즈(Akmerkez) 백화점¹⁴ 복도 입구에는 1995년 총선 바로 전날, 아타튀르크의 초상화를 실물 사이즈보다 4배 크게 제작하여 설치하기도 했다. 국가적으로는 공화국 창립기념일인 10월 29일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1994년 이전까지는 각 지방마다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의무적인 행사였지만 1995년부터 공화국 창립 기념행사는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축제의 장이 되었고 지방에서는 가수들의 야외 공연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세속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전했다. 1995년 이후, 공화국 창립기념일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많은 시민들이 집 앞에 국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슬람주의 삶의 방식과 사고들이 급격히 터키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항적인 행동들이 세속주의자들에 의해 퍼져나갔다.¹⁵

이슬람주의에 대항하는 세속주의 지지 세력들과 온건주의 이슬람 운동인 ‘굴렌 운동’¹⁶은 에르바칸(Necmettin Erbakan, 1996.6.28-1997.6.30) 총리의 정책들이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간주하며 공개적으로 RP를 비판했다. RP에 대한 비판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속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

14 증산층 이상의 고객이 오는 쇼펍센터로 이스탄불의 에티레르(Etiler)에 위치하고 있다.

15 Başkan(2010), p.179.

16 페툴라 굴렌(Fethullah Gülen)은 1970년대 말 자신의 이름을 딴 중단을 세워 이슬람 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굴렌 운동’을 이끌고 있다. 굴렌의 교육기관을 거친 인재들은 검·경찰과 언론 분야에 진출해 ‘굴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굴렌은 1980년대 외장(Turgut Özal) 대통령의 중도우파 성향의 조국당(Anavatan Partisi: ANAP)을 후원하면서 정치인과 교류를 시작했다. 터키에는 이 외에도 누르(Nur), 나쉬벤디(Naksibendi)와 같은 수니 이슬람 중단이 있으며 지방의 중소 규모 사업가나 상공인 계층이 주된 신도 층이다. 장지향, “2016 터키 쿠데타 실패: 이슬람 권위주의 정부 전복하려던 온건 이슬람주의자 장교들의 단막극”, 아산정책연구원 블로그 (2016.07.21)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47131>
(2022년 6월 21일 접속).

적 행동이 시작되었다. 1997년 2월 28일 술레이만 데미렐(Süleyman Demirel: 1998.5.16-2000.5.16)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보회의(Milli Güvenlik Kurulu,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3월 3일 이 권고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세속주의와 RP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RP와 연정에 참여한 정도당(Doğru Yol Partisi: DYP)은 이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에르바칸 총리는 이를 거부했고, 그해 5월 21일 검찰은 RP의 해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1998년 1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세속주의 원칙과 정당법의 위배를 이유로 RP의 해체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이슬람주의 탄압으로 해석되어 대규모 이슬람주의 학생들이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학생들이 이슬람식 복장을 입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간의 갈등이 여전히 정쟁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RP와 DYP의 연립내각 구성 후,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종교 활동이 강화되자 1997년 2월 28일 군부의 경고(soft coup, post-modern coup)에 의해 RP가 해산 되었고 동시에 에르바칸을 비롯한 핵심 정치인들의 활동이 금지되었다. 터키에서 위의 '2월 28일' 사건은 정치 이슬람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케말주의 패러다임과 군부의 세속주의 수호 역할에 도전하고, 이슬람 중심의 시민사회를 강화하며, 정치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친EU 노선을 선택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U는 자유주의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세속주의 수호를 위한 군부 쿠데타라 할지라도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터키의 많은 보수주의 무슬림들은 군부의 완고한 원칙이 지배적인 터키보다 오히려 인권과 법을 존중하는 EU의

인권보호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급진적인 세속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따르기로 이슬람주의자들이 선택한 것이다.¹⁷

반세속주의, 반서구화를 주장했던 에르바칸은 RP의 폐당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가 의회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에 소송을 제기했고 RP의 후신인 미덕당(Fazilet Partisi: FP) 또한 친유럽연합, 친인권, 친민주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수순을 밟았다. FP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다원적인 사회', '기본권과 자유주의', '더 큰 민주주의', '민영화', '중앙집권 해제', '세계화' 등으로 근대화, 민주주의, 다문화주의를 서구의 지배 논리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 수용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세속주의 측은 FP의 행보에 의심을 가졌고 2001년 6월 헌법재판소는 FP 의원들이 반세속주의 운동에 가담한 것을 근거로 당을 해산시켰다. 이후, 해체된 FP는 2001년 8월 레자이 쿠탄(Recai Kutan)을 중심으로 한 행복당(Saadet Partisi: SP)¹⁹과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한 AKP로 나뉘어져 새롭게 출발하였다.²⁰ FP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1990년대 지방자치 활동을 활발하게 한 젊은 개혁층에게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들이 바로

17 Steven A Cook, "The Right Way to Promote Arab Reform", *Foreign Affairs*, 84(2), 2005, p.99.

18 Yavuz(2009), pp.71-76.

19 에르바칸과 이전의 이슬람 사상을 부활시키고자 한 SP 또한 튀르키예와 EU가 가까워질 수록 인권과 민주주의 기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친-EU 노선을 당의 주요 모토로 삼았다. Angel M. Rabasa and Stephen F. Larrabee, "The Rise of Political Islam in Turkey" (Pittsburgh: RAND, 2008), pp.45-46.

20 AKP 창당 전인 2001년 6월 여론조사에서 FP 이후, 리더로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압둘라 굴(Abullah Gül), 불렌트 아르츠(Bülent Arınç), 압둘라티프 세네르(Abdullatif Sener) 등 FP 개혁파 의원들 가운데 에르도안(Erdoğan)이 40.8%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Ertan Aydın and İbrahim Dalmiş, "The Social Basis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in *Secular and Islamic Politics in Turkey: the making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ds. by Sakallıoğlu Ümit Cizre (New York: Routledge, 2008), pp.201-205.

AKP의 당원들이다.²¹ 이들은 AKP를 세속주의에 충실한 온건한 보수 정당이라고 소개하면서 과거 이슬람 정당이 사용하던 ‘이슬람 정의’ 혹은 ‘사회 정의’와 같은 이슬람주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EU에서 중요시하는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인권’과 같은 의제를 가지고 당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별히 ‘보수민주주의(Muhafazakar Demokrasi)’라 불리는 AKP의 정강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슬람적 가치, 우파의 성향 등이 혼합된 온건한 당의 성격을 보여주며 종래의 반세속주의·반서구화를 주장하는 ‘민족적 가치론(Milli Görüş)’ 정당의 이미지에서 EU 가입을 열렬히 원하는 ‘보수주의’ 정당의 이미지로 변화시켰다.²²

‘무슬림민주주의’에서 ‘보수민주주의’로 새롭게 틀을 짠 AKP 소속 학자인 얄촌 악도안(Yalçın Akdoğan)²³은 세속주의 국가에서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정당의 강령에 인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는 ‘보수’라는 어휘를 선택했고, ‘민주주의’는 사회문제들을 관용, 대화, 조화로 이끌어내는 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민주주의’는 세속민족국가와 이슬람사회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필요한 새롭고 안정된 정치사상이라고 설명했다.²⁴ 새롭게 등장한 ‘보수민주주의’ 노선은 서구주의, 동양주의, 지역주의, 세속주의, 근대주의, 민족주의, 터키주의 등과 이슬람주의를 함께 아우르

21 김대성(2008), pp.4-9.

22 1999년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가속을 얻게 된 튀르키예의 EU 가입과정에서 AKP의 EU 가입을 위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현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종일,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2011), p.12.

23 얄촌 악도안(Yalçın Akdoğan) 박사는 Yeni Şafak의 칼럼니스트이며 AKP의 새로운 헌법을 위한 구성위원회에 속했다. AKP에서는 당의 정강인 ‘보수민주주의’를 창시한 그를 ‘스승’으로 부른다. 악도안은 에르도안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지도력을 제안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아나톨루(Anadolu)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마르마라(Marmara)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24 Sakallıoğlu Ümit Cizre, “Conclusion” in *Secular and Islamic Politics in Turkey: the making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ds. by Sakallıoğlu Ümit Cizre (New York: Routledge, 2008), p.221.

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세속주의자들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보수적인 중도우파 지지자를 포용하며 동시에 과거 RP의 지지층인 좌파의 노동자계층까지 흡수할 수 있었다.²⁵ 즉 ‘보수민주주의’ 정강은 AKP가 종교, 지역, 정체성을 모두 포용하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²⁶임을 보여 주었다.²⁷

AKP의 ‘보수민주주의’는 과거 RP와 FP는 물론, SP와도 확실히 차별화함으로써 2002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10년 만에 연정의 불협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AKP는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의 34.2%를 획득하여 총 의석 550석 중 363석을 차지하면서 연정이 아닌 독자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2002년 총선의 결과는 터키뿐 아니라 서구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에게까지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터키의 정치 이슬람으로의 이행이 세속주의에 위협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터키는 세속국가로서 1960년, 1971년, 1980년, 1998년, 그리고 2001년까지 세속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주변부(periphery)를 대표하는 이슬람 정치세력이 세속주의 자들에 의해 정리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AKP의 승리요인인 온건한 ‘보수민주주의’ 정강은 네 가지의 사회·정치적 요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25 2002년 AKP 집권 당시, 전체 득표율 가운데 30% 정도가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행동당(Milliyetçi Hareket Partisi: MHP)과 이슬람 성향의 FP 지지자들로부터 나왔다. 김종일(2011), p.12.

26 AKP는 정당의 구조, 리더십, 태도, 역할, 지지기반의 측면에서 무색무취한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당의 하부구조는 더 이상 열성 이슬람활동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동원되지 않으며 지도부는 연합적 리더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중도적 성향을 취하고 정책위주의 선거 전략과 공약을 내세우며 특히 이슬람으로 묶여진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지기반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는 대중정당(mass party)이라 할 수 있는 과거 RP 시절로부터의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장지향, 「급진 세속주의국가 터키에서 온건 이슬람정당의 부상과 집권」, 『지구촌 선거와 정당: 정치적 선택의 메커니즘』, 이정희 외 역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pp.247-248.

27 Rabasa and Larrabee(2008), pp.49-50.

는 위에서 설명한 ‘2월 28일’ 사건으로 AKP의 리더들은 민주주의의 미를 세속주의 정권의 권위주의를 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²⁸

두 번째는 아나톨리아에서 형성된 새로운 중산층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조국당(Anavatan Partisi: ANAP)의 외장 대통령(Halil Turgut Özal: 1989.11.9-1993.4.17)의 경제 자유화 정책의 여파로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체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중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영세 상공인들로서 세속주의 엘리트들의 주도권 하에 있지 않고 종교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 정치학자 야부즈(Yavuz)는 신세대 이슬람 계층을 정치적 변화의 핵심세력으로 주목했다.

이슬람 운동의 변화와 특별히 AKP의 선거 승리에는 농촌에 기반을 두고 이슬람적 가치관을 가진 도시의 ‘새로운’ 계층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러한 도시의 ‘새로운’ 계층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속주의 엘리트들에게 소외되어 왔지만 이제 이들은 근대화된 이슬람 네트워크와 자본 그리고 사업방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새로운 사회변동의 동원력이 되었다.²⁹

1990년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무시아드(Mütakil Sanayıcı ve İş Adamları Derneği: MÜSİAD, 독립 기업가 및 실업가 연합)’는 과거 튀르키예 경제기구를 대표했던 ‘투시아드(Türk Sanayıcı ve İş Adamları Derneği: TÜSİAD, 튀르키예 기업가 및 실업가 연합)’를 대신하는 이슬람경제기구로서³⁰ AKP의 보수적 종교성향과 자유시장경

28 Yavuz(2009), p.78.

29 Ibid., pp.52-56.

30 무시아드(MÜSİAD)는 이슬람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공존을 보여주는 예이다. 무시아드

제 노선을 지지하였고 특히 이들은 EU 가입을 통한 경제이익을 주장하며 ‘이슬람 칼뱅주의자’로 불렸다. 아나톨리아 신흥 중산층은 ‘무시아드’를 통해 이슬람주의자로서 경제영역에서 받는 차별을 보편적인 권문제로 볼 것과 또한 이슬람적 가치를 경제생활과 사회정책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이슬람 정당 사이의 잦은 충돌로 이슬람 자본가들은 국가의 감시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리적 연계와 인적 교류를 통해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이익 창출에 유리한 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받아들여게끔 유도했으며, RP와 FP의 보수민족집단과는 다른 AKP의 신(新)보수민족집단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AKP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힘썼다.³¹ 자유주의적 가치를 향한 이슬람 자본가들의 위와 같은 추동(推動)이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반체제적 행동을 온건하게 하고 이슬람 자본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세 번째 요인은 이슬람주의의 영역확장으로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확산과 함께 이슬람주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그 영향력이 공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를 통한 이슬람주의의 영역확장에 ‘굴렌 운동’의 역할은 매우 컸다. 위에서 언급한 이슬람경제기구인 무시아드에서 출간한 ‘호모 이스라미쿠스(Homo Islamicus)’라는 소책자에서는 이슬람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 385개중 203개가 ‘굴렌 운동’과 연계

의 ‘이슬람적’ 조건은 1)이슬람 종파와 이슬람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2)이슬람이 활동의 중요한 준거점이 되어야 하고, 3)1980년대부터 RP와 FP로 대표되는 이슬람 정당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rgun Özbudun and Fuat E. Keyman, “Cultural Globalization in Turkey: Actors, Discourses, Strategies” in *Many Globalization: Cultural Divers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eds. by Piter L. Berger and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296-320.

31 민족적 가치론자(Milli Görüşçü)로 지칭하는 보수민족집단의 정치 노선으로는 당의 장기적인 활로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기존의 노선을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신(新)보수민족집단으로 인해 FP의 내부결속이 무너졌다. 김대성(2008), p.6.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ANAP의 외장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굴렌 운동’은 이슬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근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굴렌 운동’의 근본 목표는 터키민족주의 이념을 이슬람화하고 동시에 이슬람을 튀르키예화하는 ‘튀르키예식 이슬람’을 창출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아랍의 이슬람과는 다르다는 것과 세속주의 국가에서 이슬람주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온건주의를 나타낸다. 이전의 RP와 FP의 폐당을 환영했던 굴렌의 태도와 공개적인 AKP의 지지는 ‘보수민주주의’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굴렌 운동’은 교육, 미디어, 사업, 타종교와의 소통이라는 네 가지 운동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영향력은 터키를 뛰어넘어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에까지 미치고 있다.³² ‘굴렌 운동’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이맘-하티프의 급증³³과 무슬림 네트워크의 근대화는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의 출현을 돕고 이들을 중심부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KP의 수장인 에르도안 역시 이맘-하티프 출신으로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은 AKP의 집권성공으로 제도권 내에서 정권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정치와 경제 분야의 행동가(actor)가 되었다.³⁴ 이들은 과거 RP와 FP의 민족적 가치론자로서 이

32 Bekim Agai, “The Gülen Movement’s Islamic Ethic of Education” in *Turkish Islam and the Secular State: The Gülen Movement*, eds. by M. Hakan Yavuz and John L. Esposito (Syracus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3), pp.48-68.

33 1951년 7개에 불과했던 이맘-하티프는 2001년 604개의 중학교와 558개의 고등학교로 증가했고, 학생 수는 1951년 876명(중학교)과 889명(고등학교)에서 1999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19,890명과 134,224명이 되었다. 같은 시기 교사는 27명에서 15,922명이 되었다.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첫 여성수상이 된 DYP의 탄수칠레르(Tansu Çiller: 1993.6.25-1996.3.6) 정부 또한 네브자트 아야즈(Nevzat Ayaz) 교육부 장관의 7개월 재임기간에 32개의 이맘-하티프가 증설되었다. 1992년 대학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10%가 이맘-하티프 출신이고 특히 정치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40%가 이맘-하티프 출신(1987년)이라는 것은 이들이 종교분야 뿐 아니라 정치와 법, 행정 분야에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Diren Çakmak, “Pro-Islamic Public Education in Turkey: The Imam-Hatip Schools”, *Middle Eastern Studies*, 45(5), 2009, pp.831-834.

34 Metin Heper and Şule Toktaş, “Islam, Modernity, and Democracy in Contemporary

슬람원리주의 색을 띠었지만 ‘2월 28일’ 사건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그들만의 색채를 가진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재탄생시킨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EU의 ‘코펜하겐 규범(the Copenhagen Criteria)’을 들 수 있다. EU 가입 조건으로 인권(human rights),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 법치주의의 강화(the consolidation of the rule of law) 등을 요구하는 이 규범은 ‘2월 28일’ 사건 이후, 국가 중심의 급진적인 소수의 세속주의자들에게는 족쇄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세속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특히 FP 리더들과, FP 이후 AKP 당원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 코펜하겐 규범을 기준으로 개인적인 인권과 자유권으로 해석되어 세속주의 패러다임에서도 큰 충격 없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규범으로 EU는 터키 정부에 쿠르드문제,³⁵ 소수종교문제, 여성문제 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요구했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AKP의 ‘보수민주주의’ 정강이 출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³⁶

계속되는 정국의 불안정과 경제 불황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AKP의 ‘보수민주주의’는 설득력이 있었고 AKP를 승리로 이끌었다. 1990년대에 내각이 아홉 번이나 교체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오랜 정국 불안이 경제 악화에 영향을 주면서 1999년 대비 2000년 물가는 114%나 상승했다. 1999년 8월 17일 진도 7.5도의 강진이 이스탄불 동남쪽 90Km에 위치한

Turkey: The Case of Recep Tayyip Erdoğan”, *The Muslim World*, 93, 2003, pp.160-165, 157-185.

35 2004년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쿠르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재조사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튀르키예 국영방송인 TRT에서는 2004년부터 쿠르드어로 방송을 내보냈는가 하면 쿠르드어 전용 채널이 생기기도 했다. 김종일(2011), p.14.

36 Yavuz(2009), pp.1-4.

코자엘리(Kocaeli)에서 발생해 공식집계로 17,840여 명이 사망할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2000년 11월 이후 금융 위기는 더욱 심각해져 2001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정치적 불안과 실업율의 증가, 기업들의 파산과 국민총생산의 감소 등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되었던 세속주의 정부의 권위주의에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은 AKP의 '보수민주주의' 정강 내에서의 '빵과 민주주의(bread and democracy)', '깨끗한 정부(clean government)'라는 구체적인 모토에 매력을 느꼈다.³⁷

1987년 11월 총선에서 ANAP이 단독으로 집권한 이후 10년 만에 2002년 총선에서 AKP가 단독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튀르키예 국민은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전의 내각을 구성했던 정당들의 참패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 1999년 총선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민주 좌익당(Demokratik Sol Parti: DSP)과 민족 행동당(Milliyetçi Hareket Partisi: MHP이 제방형 동트제도³⁸가 채택된 2002년 총선에서는 최저한계득표선 10%를 넘지 못해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고 1990년대 정권을 주도해 온 전통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당의 득표율은 크게 떨어졌다. 전통 중도우파 정당인 ANAP과 DYP의 득표율 합계가 1991년 총선에서 51%, 1995년 총선에서 39%, 1999년 총선에서 25%로 점차 하락했는데, 2002년 총선에서는 더 떨어져 16.1%로 크게 추락했다. 중도좌파정당 또한 득표율 합계가 1995년 총선에서 31%였으나 1999년 총선에서는 CHP, DSP, 신티르키예당

37 김대성(2008), pp.1-5.

38 동트제도(d'Hondt System)는 벨기에 겐트(Ghent) 대학 동트(d'Hondt)교수가 창안한 것으로 다수당에 할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방형 동트제도는 일정 득표율을 넘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회에 진출할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다수당에 더 강력한 힘을 주게 된다. 서재만, "터키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한터학회는총』, 제 2권, (1998), pp.17-26.

(Yeni Türkiye) 등이 21% 득표율을 얻었고 2002년에는 CHP와 DSP의 득표율 합계가 20.6%로 더 떨어졌다.³⁹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2002년 총선에서 550명의 의원 가운데 490명에 해당하는 89%가 초선의원이며 60명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튀르키예 국민들은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새로운 정치인과 정당에 기대를 걸었고 ‘보수민주주의’를 내세운 새로운 AKP는 오랜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터키 국민들의 심리를 읽어 최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III. AKP 정책 변화와 AKP에 대한 평가

2002년 AKP의 집권으로 튀르키예에서 정치 이슬람의 부상을 증명했고, 2022년 현재, AKP 20년 집권으로 튀르키예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분이 보수화되었다. AKP는 집권 초기 ‘보수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정강으로 밝히면서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이슬람에 대한 세속주의 억압에 ‘사회적 합의’를 기다린다고 하며 사회갈등을 피했다. 그러나 재선에 승리한 AKP의 세속주의에 대한 태도는 첫 번째 임기 때와는 달라졌다. AKP가 지지하는 세속주의는 아타튀르크의 급진적인 세속주의가 아닌 수동적인 세속주의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중립이 되어 개인의 종교와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KP의 말대로 중도적인 정부 정책을 기다린 국민들의 기대는 이슬람주의를 양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우려감으로 바뀌고 있다. 세속주의 측에서는 처음부터 AKP의 목적은 튀르

39 김대성(2008), p.19.

키예의 이슬람화에 있었지만 이를 위해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고 있었다며 AKP를 포함한 이슬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AKP의 1차 집권기 5년은 자신들을 이슬람 정당이 아닌 서구유럽의 '기독교 민주당'과 유사한 '보수민주당'으로 정의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슬람주의 의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이슬람식 언어나 행동을 극도로 자제했다.⁴⁰ 2004년 *The Financial Times*에서 기사화된 에르도안 수상의 말이다.

AKP는 종교와 정치를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무슬림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보수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이슬람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보수주의'는 종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보수주의'를 '종교주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⁴¹

2001년 8월 14일, AKP의 발기총회에서 발표한 당규 중 제2조에 서 AKP는 튀르키예공화국의 헌법을 비롯해 인권보장을 위한 유럽 국가들의 결의, 국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 협약, 튀르키예정당법, 선거법 등을 준수하며 당규와 당 정책에 따라 조직하고 활동하기 위해 설립된 정치 단체임을 공표하고 있다. 제4조 2항에서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제시한 현대문화 수준을 국민이 누릴 수 있거나 그 수준을 능가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정치활동의 기초로 여긴다고 밝혔다. 당의 목적을 설명한 당규 4조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을 중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한다고 밝히면서 종교적 색채를

40 William Hale and Ergun Özbudun, "Islamism, Democracy and Liberalism in Turkey: The Case of the AKP" (New York: Routledge, 2010), p.187.

41 Nur Bilge Criss, "Dismantling Turkey: The Will of the people?", *Turkish Studies*, 11(1), 2010, pp.45-58, 46.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신 인권,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광범위한 어휘사용으로 종교 행위의 자유를 함축적으로 인정했다.⁴² 즉, 종교와 관련된 법에 대해 세속주의 원칙과 관련짓지 않으면서 단지 주변부인 이슬람을 튀르키예 사회와 문화에서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했다. 예를 들어, AKP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착용 금지법’이나 ‘이맘-하팁 졸업생의 대학 입학 금지법’에서도 세속주의 원칙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보았고 더 나아가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민한 사항으로 여겨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결구도는 피하고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기대했다.

외니스(Öniş)와 케이만(Keyman)은 ‘선거에서의 튀르키예: 새로운 길의 출현(Turkey at the Polls: A New Path Emerges)’에서 이슬람적 가치를 포용하면서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던 기존의 중도우파 정당과 AKP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 했지만⁴³ 그 예견은 빗나갔다. 과거의 정부가 국가안보, 통합, 중앙집권적 행정과 군사를 통한 정치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중심이었다면 AKP는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 강화에 힘을 쏟은 사회 중심의 정부로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당 내부적으로는 종교성이 강한 위원 200여명을 자유주의나 중도좌파성향의 의원들로 대체하는⁴⁴ 등 제3의 정당⁴⁵으로 발돋움하려 애썼기 때문이다. 특

42 Rabasa and Larrabee(2008), pp.53-56.

43 Ziya Öniş and E. Fuat Keyman, “Turkey at the Polls: A New Path Emerges” in *Islam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eds. by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pp.106-107.

44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165명은 완전히 방출되었고 40명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AKP 명단에 올랐다. 이는 미국 마샬기금 앙카라 지부(the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in Ankara)의 전 책임자이자 현재 앙카라 국회의원인 AKP 출신 수앗 크누르오올루(Suat Kınıklıoğlu)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Rabasa and Larrabee(2008), p.54

45 알레비파의 AKP의원인 레하 차무르오올루(Reha Çamuroğlu)는 총선 직전 인터뷰(2007년

별히 AKP는 단일정부를 구성하여 국내 정치안정과 EU 가입의 높은 가능성을 제시했고 1차 집권기 5년간 연평균 7.3%의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AKP는 2007년 7월 22일 총선에서 2002년 11월 총선에서 얻은 34%보다 13% 높은 47%의 지지를 얻으며⁴⁶ 2차 집권기를 시작했다. 원리주의 정당에서 온건한 이슬람 정당으로의 전환을 경험한 튀르키예는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공존가능성 논쟁에 낙관론을 부각시켰고, 튀르키예 정치 역사에서 이슬람주의가 대체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 의 제도권을 지킴으로써 세속주의와의 갈등에서 순기능을 했다는⁴⁷ 긍정적인 평가가 입증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7년 총선에서 550의석 중 341석을 차지한 AKP의 상승은 튀르키예 공화국 정치 역사에서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사이의 균형을 깨고 좀 더 쉽게 이슬람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터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었다. 실제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AKP는 1차 집권기와는 다르게 보수적인 정책을 결정하며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부즈(Yavuz)는 ‘AKP의 성공은 당의 정강에 튀르키예 민족주의, 이슬람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모든 요소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며 AKP의 보수적인 정치행보를 공식화 했다.⁴⁸

변화된 AKP는 공적인 면에서 종교성의 출현이 더 이상 반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가 민주주의로 가는 성숙된 과정으로

6월,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정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밝히면서 AKP가 제3의 정당임을 주장했다. Rabasa and Larrabee(2008), p.54.

46 AKP가 전체 의석 550석 중 341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훌쩍 넘긴 반면 세속주의 성향의 CHP와 MHP는 각각 112석과 71석을 차지함으로써 이슬람원리주의로의 개혁에 힘을 얻게 되었다.

47 서재만(2006), pp.90-91.

48 Yavuz(2009), pp.280-281.

또는 급진적 세속주의에서 수동적 세속주의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보 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새롭게 소개된 세속주의는 케말주의 세속주의 의 폐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한 이슬람주의의 승리를 의미하 는 것으로 여겨졌다.⁴⁹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튀르키예의 히잡 문제로 언론과 여론은 히 잡 착용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 쟁으로 들끓었다.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라는 이념의 틀로는 더 이상 히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보였다. 세속주의 여성운동가들과 이슬람 여성운동가들도 히잡 착용에 대한 자유주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다. 에르도안이 두 번의 총리 임기를 마치고 세 번째 총리임기를 시작하면 서 히잡 문제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거 사회적 합의를 기다린다고 했던 수동적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2013년 10 월 8일 화요일, 정부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 금지법’을 철폐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8월 10일, 에르도안은 보수층의 절대 적 지지를 얻으며 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이후, 2016년 8월 27일 여성 경찰이, 2017년 여성 군인이 히잡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속 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지로 여겨졌던 군대에서 여군이 히잡을 착용한 다는 것은 더 이상 히잡이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물이 아닌 지극 히 개인의 종교적 의미 즉, 사적 의미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튀르키예에서 세속주의는 히잡 문제를 향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타 튀르크의 급진적 세속주의에서 유화적 세속주의로의 변화를 단편적으 로나마 경험하고 있다.⁵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히잡 문제는 이슬람주의가 자유주의와 양립

49 한하은, “여성문제로 본 터키와 이집트의 정치 이슬람: 베일문제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 34권, 제 1호 (2015), p.88.

50 한하은,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과 히잡 착용 관계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동 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41권, 제 3호 (2021), pp.161-194.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많은 이슈들에는 종교 문제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슬람적 가치가 과도하게 많이 개입되어 사회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집권에 AKP가 성공한 바로 다음 달인 2007년 8월 28일 튀르키예 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친이슬람 성향의 외교부장관 압둘라 귄(Gül: 2003.3.14-2007.8.28)이 대통령(2007.8.28-2014.8.27)에 당선되었다.⁵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시작으로 세속주의의 수호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속주의자들뿐 아니라 이슬람주의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⁵² 야부즈는 '이중 통치권 시대의 끝(the end of dual sovereignty)'이라는 말로 정부와 군부로 나뉘었던 힘이 정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군부의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예견까지 했다.⁵³ 실제로 2007년 6월에 시작되어 2013년 8월 5일 종결된 '에르게네콘(Ergenekon)' 사건⁵⁴으로 세속주의 편인 군부, 사법부의 힘이 약화되

51 2007년 4월 귄은 AKP 소속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친-이슬람성향의 대통령 배출에 반대하는 군부와 야권, 법조계 등 세속주의 지지 세력의 저지로 당선에 실패했다. 이후 2007총선에서 AKP가 승리한 후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재지명 되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1,2차 투표에서 실패하고 3차 투표에서 전체 550명의 의원으로부터 339표를 얻어 당선 요건인 과반수(276표 이상)를 63표 넘어서며 여유 있게 당선됐다. 위와 같이 터키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7년 10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4년 대선부터 적용된다. 한하은(2015), p.89.

52 2007년 4월 14일 앙카라, 4월 29일 이스탄불, 5월 5일 마니사와 차나칼레, 5월 13일 이즈미르, 5월 20일 삼순, 5월 26일 테니즈리에서 600개가 넘는 민간 NGO 단체들(아타튀르크주의 자사상협회)를 중심으로)과 CHP, DSP, 노동조합,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했다. 시위의 중심 슬로건은 '터키의 세속주의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로 AKP의 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Ibid., p.90.

53 Yavuz(2009), pp.267-281; 한하은(2015), pp.89-90. 재인용.

54 '에르게네콘(Ergenekon)'은 이 이름을 지닌 조직이 정부 요인 암살과 이슬람 사원 테러 등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일으켜 결국은 군부의 개입으로 이슬람에 뿌리를 둔 AKP를 전복시킨다는 쿠데타 의혹 사건이다. 에르게네콘 사건은 지난 2007년 이스탄불 한 교외의 한 주택에서 무기 저장고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검찰은 군인, 정치인, 지식인 등으로 이루어진 이들 집단에게 쿠데타 모의 혐의를 적용했다.

었다. 8월 5일 재판에서 쿠데타 모의혐의로 피의자는 275명에 달하며 일케르 바쉬부(Mehmet İlker Başbuğ: 2008.8.28-2010.8.27) 전 튀르키예군 총사령관 등 17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세속주의 세력인 군부 핵심 인사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법원 앞에서 천여 명의 시위대가 세속주의 수호를 외치며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대결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쿠데타의 주범인 데린 데블릿(Derin devlet) 혹은 데블릿 이친 데 데블릿(Devlet içinde devlet)으로 불리는 반정부 단체에 에르케네콘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9년 8월 30일 *Middle East Eye*에서 밝힌 에르케네콘 사건에 대한 회고를 보면, AKP 정부의 전 복을 주도하고 행동했던 실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에서 들어났다는 것이다.⁵⁵ 결국 에르케네콘 사건과 재판들은 터키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AKP 정권을 지키고 강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재선이후 군부·사법부와의 관계에서 힘을 키운 AKP는 외교 정책과 사회·문화 정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슬람주의 노선을 과감하게 나타내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상을 중재하고 있고, 대통령을 선출 하지 못하는 레바논 정국의 교착 상태를 푸는 데도 기여했으며,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AKP의 1차 집권기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의 패권을 두고 친미 사우디아라비아, 반미 이란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3각 각축전이 진행 중인데 종교적으로 원리적이고 과격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https://en.wikipedia.org/wiki/Ergenekon_trials (2022년 6월 21일 접속)

55 Alex MacDonald, “터키 근대화를 만드는 이상한 사건: 에르케네콘(Ergenekon: The bizarre case that shaped modern Turkey)”, *Middle East Eye*, 2019.08.30.

<https://www.middleeasteye.net/big-story/ergenekon-trials-turkey-gulen> (2022년 6월 21일 접속)

란보다는 유럽을 지향하며 이슬람 전통을 수호하는 터키에 중동 각국의 대중들은 매료되었다.⁵⁶ 이는 튀르키예가 더 이상 서구의 안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력과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 성장했기 때문에 AKP가 외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에서도 튀르키예는 두 국가를 중재하며 중립을 지키고 있다.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이자 EU 가입을 원하는 국가로서의 기대되는 외교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 NATO 가입을 원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에게 자국의 위협이 되는 쿠르드 테러조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NATO 가입 반대 의사를 보여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의 NATO 가입을 찬성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 또한 튀르키예가 두 국가의 가입 찬성을 무기로 숙원사업인 전투기 현대화를 실현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⁵⁷ 튀르키예의 철저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은 에르도안을 외교의 기재로 불리게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친이슬람 성향의 외교 정책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튀르키예의 이슬람 행보가 점차 심화되고 부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와 함께 이슬람 급진주의 정치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 무장세력을 공식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타르에 군 기지를 두고 걸프해역뿐 아니라 아라비아해, 소말리아 해역,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리비아까지 영향

56 인남식, “사우디-이란 패권다툼에 튀르키예 가세..중동판 삼국지 시대 열렸다.”, 조선일보, 2022.07.04.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07/04/RRRM2D-ZEEVDX3NOIKHXMDOMYQU/ (2022년 7월 6일 접속).

57 정해인,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하게 됐지만..진짜 승자는 에르도안”, 머니투데이, 2022.06.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301051203546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2022년 7월 5일 접속).

력을 넓히며 공세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변화된 외교노선과 함께 AKP는 국내의 사회·문화 정책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변화를 원했고 미디어 조직과 ‘굴레 운동’은 AKP의 이슬람정책을 돕는 엔진역할을 했다. 이슬람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부활시키기 위해 AKP는 자신의 정책을 수용하는 보수적인 미디어를 지원했다. 반면에 AKP에 반대하는 세속주의 미디어를 약화시켰다. 세속주의 미디어를 약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은 탈세힘의 ‘도안(Doğan) 그룹’에 막대한 벌금형을 내린 것인데 벌금형의 실제적인 이유는 도안그룹 미디어에서 에르도안 보수화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르도안은 공개적으로 도안그룹의 신문 불매운동을 요청하는 등 자신에 대한 풍자나 비판에 대한 직접적 보복을 과감하게 처리했다.⁵⁸ 반면에 보수적인 미디어는 강화되었는데 자히드 악크만(Zahid Akman)⁵⁹을 라디오·텔레비전 심의회(Radyo Televizyon Üst Kurulu: RTÜK, the Supreme Board of Radio and Television Council)의 대표로 두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수적인 가치, 이슬람에 대한 지식, 오스만제국의 유산 그리고 반유대주의 같은 반세속주의적 내용을 증가시켰다.⁶⁰ *Star*와 *Yeni Şafak*⁶¹이라는 신문과 Kanal7⁶² 방송은 AKP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면서 AKP의 큰 힘이 되

58 Bilge Criss(2010), p.49.

59 자히드 악크만(Zahid Akman)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라디오·텔레비전 심의회(Radyo Televizyon Üst Kurulu: RTÜK)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3-2000년까지 앙카라에서 Kanal7 뉴스제작자로 있었고 2000-2003년까지는 워싱턴에서 Kanal7 대표자로 있었다.

60 Zeyno Baran. “Torn Country: Turkey between secularism and Islamism”(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Publication, 2010), pp.82-83.

61 Yeni Şafak의 경영주의 아들인 베라트 알바이락(Berat Albayrak)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이다. Ibid., p.83. 에르도안의 사위인 알바이락은 경제부 장관(Türkiye Hazine ve Maliye Bakanı: 2018.7.10-2020.11.10)을 역임했다.

62 Kanal7은 온건한 종교성을 가진 즉, 대표적인 보수 TV 채널이다. 이슬람기업(Yimpaş Holding)이 Kanal7의 소유주이다. Baran(2010), pp.83-84.

고 있다. AKP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미디어뿐 아니라 이슬람주의 노선을 같이 걸었던 ‘굴렌 운동’의 미디어 또한 AKP를 도와 터키 사회의 이슬람화를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Zaman*, *Today's Zaman*, *Bugün* 신문과 *Samanyolu*, *Ebru*, *Mehtap TV*는 ‘굴렌 운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알려져 있다. AKP정부와 ‘굴렌 운동’을 적으로 대했던 군부의 쿠데타 계획이 *Zaman*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면서 에르게네콘 재판이 힘을 얻기도 했다. ‘굴렌 운동’은 미디어뿐 아니라 사업과 교육 활동을 통해 AKP를 도왔다. AKP 또한 자유시장과 무역을 강조하면서 ‘굴렌 운동’의 사업⁶³에 많은 이익을 주었고, 특히 공무원의 정년을 법으로 낮추면서 사법부, 행정부, 경찰에서 퇴직한 2,000명 이상의 세속주의 인사들을 ‘굴렌 운동’ 내의 사람들로 임명하는 등 AKP의 성장과 ‘굴렌 운동’은 불가분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⁶⁴ 그러나 ‘굴렌 운동’과 AKP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에르도안의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 ‘굴렌 단체’의 폭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터키 쿠데타의 배후로 굴렌을 지목하면서 터키정부는 궤석재판에서 굴렌에게 종신형 2회와 1,900년형을 구형하며 미국망명의 빌미를 제공했다. 2016년 쿠데타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 작업으로 군인, 법조인, 공무원, 교사 등 6만 여명이 현직에서 축출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굴렌지(Gülenci: 굴렌 운동의 지지자)라는 주장이다. 현재 튀르키예는 AKP 정권에 충성된 언론,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패한 국가가 되었다. 부패인식지수⁶⁵에서 터키는 180

63 대표적인 굴렌사업공동체인 TUSKON(Confederation of Businessmen and Industrialists of Turkey)은 2005년 이스탄불에서 시작되어 2007년에는 워싱턴 D.C.에도 문을 열면서 주목받고 있다. Carol Migdalovitz, “터키: 정체성과 권력의 정치(Turkey: Politics of Identity and Pow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2010.09.21. <http://digital.library.unt.edu/ark:/67531/metadc29601/>

64 Rabasa and Larrabee(2008), p.56.

6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개국 중 2018년 78위(41점)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2021년 1월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는 96위(38점)로 2013년 (50점) 이후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다.⁶⁶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교육 또한 AKP 20년 집권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AKP는 보수적인 이슬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비인가 꾸란 학교를 AKP가 지원하면서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꾸란 학교의 수는 두 배가 넘어섰고⁶⁷ 부모들이 자원해서 아이들을 꾸란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학생의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여학생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⁶⁸ 또한 1997년 '2월 28일' 사건 이후 계속 숫자가 줄어든 이맘-하팁의 학생 수는⁶⁹ AKP가 집권한 2002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2004년 봄에 이맘-하팁 졸업생이 일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AKP가 허가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⁷⁰ 이맘-하팁의 전체 커리큘럼에서 아랍어와 꾸란 등 종교교육이 4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5%를 차지하는 세속주의 과목에서도 아타튀르크의 개혁과 세속주의 원리들을 비판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⁷¹ 이맘-하팁 졸업생의 82%가 일반대학으로 진학하고, 대학졸업 후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우면

국제투명성 기구(TI)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66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 (2022년 6월 11일 접속).

67 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꾸란학교는 약 8,000개가 되지만 사실, 터키 지역 회교사원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꾸란학교가 있는 실정이다. "나는 불법 꾸란학교를 반대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Kaçak Kuran kursuna ceza indirimine karşı çıktım, dinletemedim)", Radikal, 2008.08.06. <http://www.radikal.com.tr/Radikal.aspx?aType=RadikalDetayV3&ArticleID=892023&CategoryID=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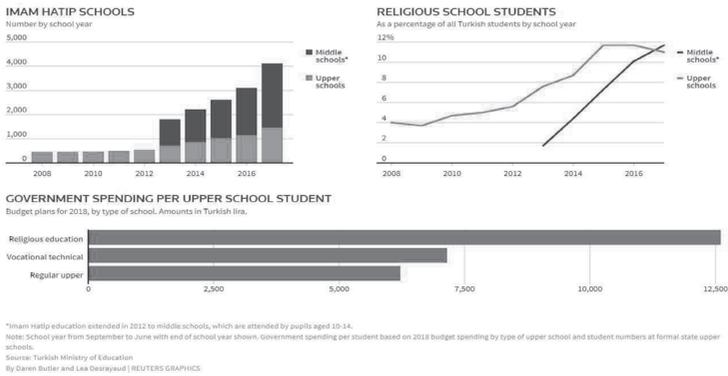
68 Baran(2010), pp.86-87.

69 1997-98년 이맘-하팁의 학생 수는 213,417명으로 1996-97년의 418,775명에 비해 많이 줄었고, 1999-2000에는 134,224명, 2001-2002에는 71,742명으로 1997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해서 이맘-하팁의 학생 수는 줄었다. Çakmak(2009), pp.835-836.

70 Ibid., pp.837-838.

71 Ibid., pp.838-839.

서 이맘-하팁은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을 배출시키고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2018년 1월 25일자 *REUTERS*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이맘-하팁의 숫자와 학생 수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REUTERS〉

또한 2017년 9월 에르도안이 이맘-하팁 모교 방문 행사에서 “신앙인 세대(pious generation)가 국가의 변화를 주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슬람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공식 연설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⁷² 이맘-하팁의 위상변화와 함께 튀르키예의 공립학교에서도 이슬람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전의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매주 3-4시간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⁷³ 이슬람 원리

72 Daren Butler, “더 많은 이슬람 학교, 에르도안은 터키를 재편하고자 하다.(With more Islamic Schooling, Erdogan aims to reshape Turkey)”, *REUTERS*, 2018.01.25.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turkey-erdogan-education/>(2022년 7월 1일 접속).

73 1982년 헌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종교수업이 합법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터키는 종교수업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아이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의무적인 종교수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 판결을 내린 입장이다. Yesim

와 교리를 표면적으로 가르쳤지만 최근에 공립학교에서는 정해진 종교교육 시간 외에 종교적 관행이 실천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한 여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종교 지식(Religious Knowledge)’이라는 교과서에는 히잡 착용을 독려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현재 공립학교에는 기도실이 모두 배치되어 있고 교실에서 기도 깔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교사에게는 종교적 가치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과학자연합(Eğitim ve Bilim Emekçileri Sendikası: Eğitim-Sen, Education and Science Workers Unio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세속주의를 교육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해고, 전근 혹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아나톨리아 지방의 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의 확산은 AKP가 이 지역 교사들을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임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2009년 11월 8일자 *Washington Post*는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교육의 핵심이었던 과학 과목에서는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히려 창조론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9년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윈 2백 주년’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Bilim ve Teknik* 과학 잡지의 편집장을 정부에 보고한 뒤 해고한 해프닝과 튀르키예에서는 25% 미만만이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⁷⁴ 이와 같이 튀르키예의 교육은 급격히 종교화되고 있는데 이는 AKP의 반세속주의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성운동 또한 AKP 20년 집권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다. ‘세속주

Arat, “Religion, Politics and Gender Equality in Turkey: implications of a democratic paradox?”, *Third World Quarterly*, 31(6), 2010.

74 Mark Kaufman, “터키는 창조론이 비옥한 곳(In Turkey, fertile ground for creationism)”, *The Washington Post*, 2009.11.08.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11/07/AR2009110702233.html>

의와 이슬람 여성운동가들은 그들이 세속주의자이고 이슬람주의자이기 이전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할 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충고를 들을 정도로 이념에 간혀 함께 연합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념을 뛰어 넘어 터키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대의를 품고 함께 연합한 이슬람 여성운동가와 세속주의 여성운동가의 결단과 행동은 히잡 정책을 변화시키고⁷⁵ 나아가 튀르키예 사회에 큰 변화의 물꼬를 터 주었다. 세속주의-이슬람주의로 양분화 되었던 시민사회는 히잡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히잡 문제에서만 AKP 정부가 여성운동가들에게 지지를 보낸 사실은 곧 밝혀졌다. AKP는 집권하면서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남녀평등을 위해 일하는 여성운동가와 그들의 NGO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⁷⁶ 이슬람적 가치관에 맞는 여성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형법 개정 과정에서 간통죄를 찬성하고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를 반대한 것은 AKP의 본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2011년 6월 선거 며칠 전, AKP가 ‘여성가족부(Kadın ve Aileden Sorumlu Devlet Bakanlığı, the Ministry of Responsible for Women and Family Affairs)’를 ‘가족사회부(Aile Sosyal Politikalar Bakanlığı, the Ministry of Family

75 가장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슈가 히잡 문제였는데 오히려 히잡 문제가 여성운동가들이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에르도안의 장기집권으로 터키사회가 보수화 되면서 히잡을 착용한 인구가 많아지고 히잡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갈등의 축이 되었던 과거의 상징물이 아닌 지금처럼 개인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의 자유화를 위한 모든 사회의 노력과 합의의 결과로 여성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히잡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세속주의 여성운동가와 이슬람 여성운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한하은(2021), pp.161-194.

76 튀르키예에서의 여성운동은 남녀평등을 위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투쟁하는데 첫 번째는 여성의 노동참여, 두 번째는 여성의 정치참여, 세 번째는 가정 내 여성폭력 철폐, 마지막으로 여성의 법적인 지위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 AKP는 집권을 시작하며 위의 여성운동이 목적으로 하는 문제들에 구체적인 제안과 실행을 약속했다. Ibid., pp.179-180.

and Social Policies)’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성운동가들과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⁷⁷ 여성운동가들은 여성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것을 사회적 보수화의 결과로 여겼으며 가족제도의 강화를 위해 여성이라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처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족사회부’로의 명칭변화와 함께 에르도안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보수적 발언은 튀르키예 사회에 특히 여성운동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⁷⁸ 결국 에르도안은 여성을 보호하는 국제조약에서 튀르키예를 제외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2021년 3월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⁷⁹ 정부가 이슬람법에 근거하여 여성운동을 그리고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⁸⁰ 여성운동가들과 이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 AKP의 이슬람주의 정책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외치며 자신들의 의견을 분출했다.

AKP는 반세속주의 정책뿐 아니라 대다수 수니 무슬림의 일상생활에도 이슬람 원리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 주류에 대

77 여성운동가들은 정부가 여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부를 가족사회부로 바꾸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 즉, 아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퇴역군인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포괄적 중요성을 앞세워 여성을 위한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뒤로 미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Zana Çıtak and Özlem Tür, “Women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xperience in Turkey”, *Middle Eastern Studies*, 44(3), 2008, pp.463-466; 한하은(2021), pp.172-173. 재인용

78 2011년 6월 총선 선거운동 중에 에르도안은 연설 할 때마다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세 명 이상 낳고 육아에 힘써야 한다’라고 외치며 여성의 정체성을 가정으로 한정지었는데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가들은 더욱 결집하게 되었다. Ibid., pp.183-184.

79 “여성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에서 떠나는 터키, 수백 명의 시위(Hundreds Protest Turkey Withdrawing from International Treaty to Protect Women)”, CNN, 2021.03.21. <https://edition.cnn.com/videos/world/2021/03/21/turkey-withdraws-from-istanbul-convention-to-combat-violence-against-women-karadsheh-lkl-vpx.cnn/video/playlists/intl-latest-world-videos/> (2022년 2월 6일 접속)

80 “터키 정부는 더 이상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Activist: Turkish Government isn’t Supporting Women)”, CNN, 2021.03.19. <https://edition.cnn.com/videos/world/2021/03/19/elif-shafak-violence-against-women-turkey-sot-amanpour-vpx.cnn> (2022년 2월 8일 접속)

한 세금부과, 음주나이 제한, 국가가 경영하는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⁸¹ 인터넷 검열 제도⁸² 등 일상생활을 더욱 보수화시키는 AKP의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청 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히잡을 착용해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가 되었다.⁸³

이슬람법 교수이자 이슬람주의 신문 *Yeni Şafak*의 기고자인 하이레틴 카라만(Hayretin Karaman)은 튀르키예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쉽지는 않지만 이슬람 시민사회의 전폭적 지지운동과 이슬람적 가치에 맞는 더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말한 ‘길고 좁은 길(long and narrow road)’을 AKP와 에르도안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의 ‘점진적 이슬람주의 실행’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 결과, 세속주의와 자유주의는 동시에 침식되는 듯 보인다.⁸⁴

윌리엄 할레(William Hale)와 에르군 외즈부둔(Ergun Özbudun)

81 2005년 내무부(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에서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은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교모임(the social club of sports teams)에서도 주류반입은 금지가 되었다. R. Başaran, “음주 금지를 위해 압박하다(Bakanlık içki yasağı için bastırıyor)”, *Radikal*, 2006.05.01./ ‘닐슨조사에 따르면, 2005-2008년 사이에 튀르키예의 주류 판매량은 12.6% 감소했다. Arat(2010), p.876.

82 튀르키예 정부는 2011년 8월 22일부터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4가지 패키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인터넷 검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패키지는 가족형, 어린이형, 국내형, 표준형의 4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패키지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웹 사이트는 터키 정부가 수시로 결정하고 그 리스트는 비공개된다. 야당과 언론, NGO 등에서는 시대착오적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행했다. 인터넷 검열제도 도입 이전 이미 터키의 13,000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다. “인터넷 검열제도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Internet users to march against Internet filter system)”, *Hürriyet Daily News*, 2011.05.13. <http://www.hurriyetdailynews.com/default.aspx?pageid=438&n=internet-users-march-against-internet-filter-application-2011-05-13>.

83 Baran(2010), pp.100-101.

84 Mustafa Akyol, “세속주의에 대한 여러 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Turkey’s troubled experiment with Secularism)”, *The Century Foundation*, 2019.04.25. <https://tcf.org/content/report/turkeys-troubled-experiment-secularism/> (2022년 7월 22일 접속)

은 2010년 논문 ‘튀르키예에서 이슬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AKP의 경우(Islamism, Democracy and Liberalism in Turkey: The Case of the AKP)’에서 AKP가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를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민족주의 중심성향을 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는 독단적인 자세를 취할지 AKP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⁸⁵ 10년이 더 지난 2022년 지금의 AKP의 모습을 보면, AKP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해답이 나온다. 이슬람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는 독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KP의 새로운 세속주의(모든 분야에 종교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수동적 세속주의, 부드러운 세속주의)를 지지한 아부즈는 최근 2019년 논문⁸⁶에서 AKP에 특히 에르도안에 터키가 완전히 속았다며 에르도안이라는 지도자가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둑정치의 대표주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에르도안 지배 하의 튀르키예는 민주주의도 이슬람법 샤리아의 세계도 아니고 오히려 독재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디어, 쿠르드 문제, 헌법 개정, 외교, 젠더 문제 등 세계화 흐름과 시대의 부름에 완전히 역행하여 터키 국익에 AKP 정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은 다르다며 이슬람주의에 회의적인 바쌌 티비(Bassam Tibi)는 2013년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Islamism and Islam)’라는 저서⁸⁷에서 제도적 이슬람주의의 한 사례로 튀르키예의 이슬람주의 즉, AKP가 중동과 이슬람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시선과 희망이 얼마

85 Hale and Özbudun(2010).

86 M. Hakan Yavuz and Ahmet Erdi Öztürk, “Turkish secularism and Islam under the reign of Erdoğa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2019.

87 Bassam Tibi, *Islamism and Islam*, 유지훈 옮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 (지와 사랑, 2013).

나 무의미했는지 에르도안의 독재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주의 지지자이건 아니건 AKP가 쏘아올린 튀르키예의 이슬람주의는 실패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총선 결과는 터키 국민들도 더 이상 AKP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9년 총선에서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3대 도시에서 시장이 모두 야당인 세속주의 정당 CHP에서 배출되었다.⁸⁸ AKP는 이스탄불 시장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재선거를 시행했지만 에크렘 이맘오울루(Ekrem İmamoğlu: 2019.4.17-2019.5.6, 재선거(2019.6.23), 2019.6.27-현재)는 재선거에서 원선거 보다 57만 2천 여 표를 더 얻어 54.21% 득표율로 이스탄불 시장에 재선되었다.⁸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슬람주의 부활과 친이슬람 정책의 과부화는 튀르키예 사회의 보수화를 이끌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AKP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으로 터키 사회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종교성도 낮아지고 있음이 자명해지고 있다.⁹⁰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World Values Survey(WVS)*에서 조사한 국민의 ‘신(神)의 중요성 인식 수준’⁹¹을 보면 최저 1점부터 최고 10점까지로 1990년에는 평균 8.84, 1996년 9.18,

88 “터키 2019년 총선, 에르도안 대도시에서 좌절(Turkey local elections: Setback for Erdoğan in big cities)”, BBC, 2019.04.0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764393> (2019년 11월 10일에 접속)

89 “에크렘 이맘오울루 9.2% 격차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다(Ekrem İmamoğlu yüzde 9,2 farkla İstanbul Büyükşehir Belediye Başkanı seçildi)”, Euro news, 2019.06.24. <https://tr.euronews.com/2019/06/23/23-haziran-istanbul-belediye-baskanligi-secim-sonuclar-ekrem-imamoglu-binali-yildirim> (2019년 11월 10일에 접속), 한하은(2021), p.191.

90 Peter Kenyon, “질문조사 결과, 터키인들의 종교성이 약화되었다(Turks examine their Muslim devotion after Poll says faith could be waning)”, npr, 2019.02.11. <https://www.npr.org/2019/02/11/692025584/turks-examine-their-muslim-devotion-after-poll-says-faith-could-be-waning> (2022년 6월 22일에 접속)

91 삶에서 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은 반대로 매우 중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9.10 그리고 2007년에는 평균 9.36 수준까지 올라가 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에서 2022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평균 8.1로 급격히 내려가 종교성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또한 알 수 있다.⁹²

IV. 맺는 말

AKP 집권 이후, 히잡 착용 문제가 이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해결되어 큰 지지를 받았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한편이 아닌 균형을 맞추는 외교로 세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튀르키예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KP 집권 20년, 현재 튀르키예는 경제 위기와 함께 AKP에 대한 반정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AKP가 주창한 ‘보수민주주의’에 국민은 큰 기대와 선거를 통해 지지를 보였지만 초창기 AKP의 정치색(이슬람주의와 자유주의의 연합)은 재집권 시작과 함께 이슬람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 시행으로 사라졌다. 2013년 반정부시위 그리고 2016년 쿠데타로 인해 굴렌 운동가들을 비롯한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에르도안 개인을 위한 정치 이슬람을 반대한다며 현 정부와 등을 돌렸다. 공공연하게 AKP 내에서도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주장했던 전 경제부장관은 경질되었고 그 자리에 에르도안의 사위가 올랐다.⁹³ AKP가 집권한 20년 동안 자유주의

92 <http://www.wvsevsdb.com/wvs/WVSDocumentation.jsp?Idioma=I> (2022년 6월 20일에 접속)

93 Natasha Turak, “터키 경제, 에르도안 사위를 경제부 장관으로 영입하면서 침체(Turkish markets sink as President Erdoğan hires son-in-law as finance minister)”, CNBC, 2018.07.10. <https://www.cnbc.com/2018/07/10/turkish-markets-sink-as-president->

와 이슬람주의 연합이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듯 분출되고 확장되었지만 지금의 튀르키예는 이슬람주의자도 아닌 세속주의자도 아닌 AKP 정권에 충성된 언론, 기업,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사회, 부패한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이슬람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기준(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슬람법이 적용되기 원함)에 튀르키예 사회는 갈 길이 멀고 세속주의자들도 자신들의 기준(공적인 영역에서 이슬람 성향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함)에서는 튀르키예사회의 보수화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터키에서 정권교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⁹⁴

더 큰 선(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제거하는)을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소위 자애로운 권위주의(급진 세속주의자들 즉, '케말주의자'들의 의견)에 지치고 이슬람과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슬람주의(에르도안 독재의 권위주의)로만 향하는 AKP에 지쳐 이제야 튀르키예 사회는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두 프레임에 갇힌 좁은 시야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아도 됨을 배우고 있다. 이념보다는 자유주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이다. 다음 정권을 CHP가 잡아도 케말주의는 불가능할 것임은 자명하다. 보수화된 터키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가 연합한 미국식 세속주의를 주창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KP로 인한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이념에 갇힌 튀르키예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 받기를 다수 세계의 튀르키예 지역학자로서 기대한다.

erdogan-hires-son-in-law-as-finance-.html (2022년 7월 1일에 접속)

94 Steven A. Cook, "에르도안 이보다 더한 어려움은 없었다(Erdoğan Has Never Been in This Much Trouble)", Foreign Policy(FP), 2021.11.24. <https://foreignpolicy.com/2021/11/24/erdogan-has-never-been-in-this-much-trouble/> (2022년 7월 1일에 접속)

■ 참고문헌

- 김대성. “터키 정의발전당의 창당과 집권에 대한 연구: 2002년 총선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 10권 제4호, 2008.
- 김종일.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2011.
- 서재만. “터키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한터학회논총』. 제 2권, 1998.
- _____. 「터키공화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중동정치 이해3』.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 사업단 엮음 (한올아카데미), 2006.
- 장지향. 「급진 세속주의국가 터키에서 온건 이슬람정당의 부상과 집권」. 『지구촌 선거와 정당: 정치적 선택의 메커니즘』. 이정희 외 엮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한하은. “여성문제로 본 터키와 이집트의 정치 이슬람: 베일문제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 34권, 제 1호, 2015.
- _____.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과 히잡 착용 관계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41권, 제 3호, 2021.
- Agai, Bekim. “The Gülen Movement’s Islamic Ethic of Education” in *Turkish Islam and the Secular State: The Gülen Movement*, eds. by M. Hakan Yavuz and John L. Esposito (Syracus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3.
- Arat, Yeşim. “Religion, Politics and Gender Equality in Turkey: implications of a democratic paradox?”, *Third World Quarterly*, 31(6), 2010.

- Aydın, Ertan and Dalmış, İbrahim. "The Social Basis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in *Secular and Islamic Politics in Turkey: the making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ds. by Sakallıoğlu Ümit Cizre (New York: Routledge), 2008.
- Baran. Zeyno. "Torn Country: Turkey between secularism and Islamism"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Publication), 2010.
- Başkan, Filiz. "Religious versus Secular Group in the Age of Globalisation in Turkey". *Totalitarian Movements and Political Religions* 11(2), 2010.
- Bilge Criss, Nur. "Dismantling Turkey: The Will of the people?". *Turkish Studies*, 11(1), 2010.
- Cook, Steven A. "The Right Way to Promote Arab Reform". *Foreign Affairs*, 84(2), 2005.
- Çakmak, Diren. "Pro-Islamic Public Education in Turkey: The Imam-Hatip Schools". *Middle Eastern Studies*, 45(5), 2009.
- Çıtak, Zana and Tür, Özlem. "Women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xperience in Turkey". *Middle Eastern Studies*, 44(3), 2008.
- Göle, Nilüfer. "Secularism and Islamism in Turkey: The Making of Elites and Counter-elites". *Middlet East Journal* 51(1), 1997.
- Hale, William and Özbudun, Ergun. "Islamism, Democracy and

- Liberalism in Turkey: The Case of the AKP" (New York: Routledge), 2010.
- Heper, Metin and Toktaş, Şule. "Islam, Modernity, and Democracy in Contemporary Turkey: The Case of Recep Tayyip Erdoğan". *The Muslim World*, 93, 2003.
- Navro-Yashin, Yae. "The Market for Identities" in *Fragments of Culture: The everyday of Modern Turkey*, eds. by Deniz Kandiyoti and A. Saktanber (London: I.B. Tauris), 2002.
- Öniş, Ziya and Keyman, E. Fuat. "Turkey at the Polls: A New Path Emerges" in *Islam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eds. by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 Özbudun, Ergun and Keyman, Fuat E. "Cultural Globalization in Turkey: Actors, Discourses, Strategies" in *Many Globalization: Cultural Divers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eds. by Piter L. Berger and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Rabasa, Angel M. and Larrabee, Stephen F. "The Rise of Political Islam in Turkey" (Pittsburgh: RAND), 2008.
- Tibi, Bassam. *Islamism and Islam*, 유지훈 옮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 (지와 사랑), 2013.
- Ümit Cizre, Sakallıoğlu. "Conclusion" in *Secular and Islamic Politics in Turkey: the making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ds. by Sakallıoğlu Ümit Cizre (New York: Routledge), 2008.

Yavuz, M. Hakan. *Secularism and Muslim Democracy in Turk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Yavuz, M. Hakan and Öztürk, Ahmet Erdi. "Turkish secularism and Islam under the reign of Erdoğa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2019.

■ 영문초록

A Study on Political Islam in a Secular State, Türkiye Followed by the AKP's 20-Year Ruling : Focusing on Policies Changed by the AKP

Haeun Han

Türkiye is currently experiencing widespread anti-government sentiments against the AKP, in addition to the economic crisis. During the election periods, the Turkish people had high expectations and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Democracy” advocated by the AKP. However, the AKP’s original political color—the coalition of Islamism and liberalism—disappeared after their second administr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centered on Islamic values. Fueled by the anti-government protests in 2013 and the coup attempt in 2016, moderate Islamists, including the Gülen activists, have turned their backs on the current government, claiming that they oppose a government that is only called “political Islam” to serve Erdoğan himself. During the twenty years of AKP rule, the phrase, “a coalition of Islamism and liberalism” was spread excessively throughout the country, as if it were to be taken for granted.

Today in Türkiye, however, neither Islamist nor secularist can survive, and only media outlets,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who are loyal to the AKP regime survive. This implies that the country has become a totalitarian, authoritarian, and corrupt society. Thus, it is now anticipated that Türkiye will no longer be trapped within the dual frames of Islamism and secularism and will instead prioritize liberalism over ideology.

Keywords: AKP, Political Islam, Secularism, Islamism, Liberalism